일념으로 정진해 진리의 문에 들라

조계종 종정 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

자개주장자(這箇拄杖子)는
삼세불조명근(三世佛祖命根)이며 열성겸추(列聖鉗鎚)라.
환두이성(換斗移星)하고 경천동지(驚天動地)로다.
십마인(什麽人) 임마래(恁麽來)오?
시거간(試擧看)하라.

이 주장자는
삼세불조의 생명의 뿌리이며 열성의 불집게와 쇠망치라.
북두를 잡아 별을 옮기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진동함이로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는 것인고? 시험에 드는 것을 보라.
금일(今日)은 하안거(夏安居) 해제일(解制日)입니다.
결제(結制)와 반살림을 지나 어언간(於焉間)에 해제일이 도래하니,

이처럼 시간(時間)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신속(迅速)하니 결제, 해제가 반복되는 일상(日常)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금일은 있음이나 내일은 알 수 없으니, 금생에 대오견성(大悟見性)하지 못한다면 어느 생(生)에 부처님 심인법(心印法)을 만난다고 기약(期約)하겠는가.
이 공부는 결제해제에 불상관(不相關)하고 일생을 걸고 신명(身命)을 바쳐 "금생에 기필코 이 일을 해결하겠다"는 간절(懇切)한 각오로 화두(話頭)를 참구(參究)하면 누구라도 진리(眞理)의 문에 들어갈 수 있음이라.
화두(話頭)가 있는 이는 각자의 화두를 챙기되, 화두가 없는 이는 "부모에게 나기 전에 어떤 것이 참나인가?"하고 이 화두를 일체처(一切處) 일체시(一切時)에 챙기고 의심하여 일념(一念)이 지속되도록 정진(精進)하고 또 정진할지어다.

진리의 문(門)을 활짝 여니
범부(凡夫)와 성인(聖人)이 한집에서 같이 살고 있고,
진리의 문(門)을 닫으니
북쪽에는 백두산(白頭山)이요, 남쪽에는 한라산(漢拏山)이로다.

지금 이 자리는 범부(凡夫)와 도인(道人)을 가리는 선불장(選佛場)이다.
누구든지 꾸준히 갈고 닦아 자신의 본분사(本分事)를 뚜렷이 밝혀낼 것 같으면, 도인과 범부를 가리는 이 관문(關門)을 통과하여 불법 정안(正眼)을 인증(印證)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 깨달아 알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혼자서 스스로 '알았다' 고하면 모두 사견(邪見)에 빠지고 만다.
그러므로 먼저 깨달으신 선지식(善知



識)을 찾아가서 자신이 깨달은 경지를 점검(點檢)받아야만 그 진위(眞僞)를 가릴 수가 있는 법이다.
부처님께서도 "스승 없이 깨달은 자(者)는 모두 천마(天魔)이고 외도(外道)이다."라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제불제조(諸佛諸祖)께서 인증(印證)의 가풍(家風)을 확고히 세워놓으신 것이다.
중국의 당나라 시대에 위대한 선지식(善知識)은 할(喝)로 유명한 임제(臨濟)선사와 봉(棒)으로 유명한 덕산(德山)선사로 상징(象徵)된다.
그 덕산 선사의 제자로 암두(巖頭)선사와 설봉(雪峰)선사를 두었다.
암두선사께서 불법사태(佛法沙汰)를 당하여 속복(俗服)을 입고 머리를 기르고 뱃사공을 하면서 사셨던 적이 있었다.
양쪽 강둑에 각각 목판(木板)을 하나씩 걸어놓고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그 목판을 치면, 초막에서 노를 잡고 춤을 추며 나와서 강을 건네주곤 하였다.
어느 날 한 보살이 아이를 업고 와서 목판을 쳤다. 암두 선사께서 "누구요?" 하고 나와서 여느 때처럼 춤추며 와서 배를 대니, 보살이 갑자기 아이의 멱살을 잡아 쳐들고서 물었다.
"노를 잡고 춤추는 것은 묻지 아니하거니와, 이 아이가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일러 보시오."
암두 선사께서는 말없이 노를 가지고 뱃전을 세 번 쳤다.
그러자 보살은, "내가 아이를 여섯이나 낳았어도 지금까지 아는 자를 만나지 못했는데, 일곱 번째 아이를 낳고 만난 이 자도 역시 신통치 못하구나"하면서 쳐들고 있던 아이를 강 가운데로 던져 버렸다.
그런 후로 암두 선사께서는 뱃사공 일을 걷어치워 버리셨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법문이다. 보살이 귀한 아이를 강에다 던져버린 까닭은 무엇이며, 또 어떻게 답을 했어야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었겠는가?
그러면, 암두 선사께서 뱃전을 세 번 친 그 답이 잘못된 것인가?
아이를 강물에 던진 보살은 어떠한 용심(用心)을 한 것인가?
이러한 관문을 능히 통과해야만 과거장(科擧場)의 합격자로 인증(印證)을 받아서 비로소 만인에게 불법의 진리를 펼 수 있는 사표(師表)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언제나 삼매로 여여하길

해인총림 방장 원각 스님



찰해무애(刹海無涯)해도 분리당처(不離當處)이며, 진겁전사(塵劫前事)해도 진재이금(塵在而今)이니라. 시교이적면상정(試敎伊覿面相錠)하니, 변불해당풍염출(便不解當風拈出)이구나. 차도, 과재십마처(且道, 過在什麽處)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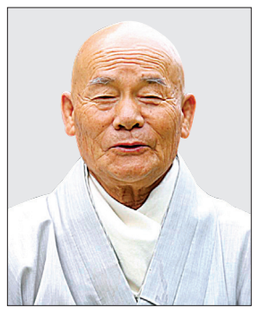
오늘은 하안거 해제일입니다.
여름 한철 대중스님들께서 여법하게 정진하시고 이제 산문을 나가 각자의 수행처로 옮겨갈 겁니다. 그러나 다시금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며 조용한 가야산 산중에까지 염려를 끼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 더욱 조심하고 자신을 잘 챙겨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역경계도 이제 한 걸음 남았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히려 화두를 챙기고 정진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산문을 나가 어디를 가든 그 자리가 수행처이고, 안거를 보내고 산철을 지내도 언제나 삼매로 여여(如如)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부터 지금의 상황을 여실히 바라보고 변화할 때,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변의 모든 것도 함께 이 시기를 극복하는 힘을 갖게 됩니다. 모든 괴로움을 없애는 무상의 법은 시비 장단에서 벗어난 본래의 마음 바탕에서 지혜스럽게 작용할 때 모든 것이 활발하고 분명해 집니다.

선자파색서우(扇子破索犀牛)이니,
권련중자유래유(棬攣中字有來由)이라.
수지계곡천년백(誰知桂轂千年魄)이,
묘작통명일점추(妙作通明一點秋)이리요.

부채가 부서져 무소를 찾으니, 일원상의 한 글자는 그 유래가 있도다.
누가 알았으랴? 달빛없이 어두운 기나긴 밤이, 가을의 보름달이 되어 환히 밝아올 줄을.

신심은 바람이요, 거문고줄 골라졌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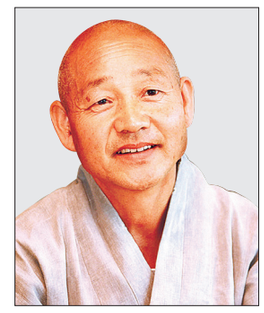
덕숭총림 방장 달하 스님



여름을 떠나는 풀벌레 합창도 숲속으로 잦아듭니다. 끝 간 데 없이 높아진 하늘, 가을이 전설처럼 밀려옵니다.
만상이 적멸이라 석가의 면목이요/ 적멸이 멸이하니 진귀조사 얼굴이로다 / 부처님 묘리진광은 길이 매하지 않네 / 누가 보리도를 묻는다면 대답 않고 백운 사이로 돌아가리.
만공 스님 법문입니다. 어떻게 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도와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보살행이 있을 뿐입니다. 세세생생 보살행이 있을 뿐입니다.
태양과 바다가 바람을 만나면 활력이 펑펑 쏟아집니다.
새벽하늘 푸른 깊이 굽이굽이 산 능선, 대지의 땅향기 물소리 새소리 구절구절 대각이요, 유아독존이요, 보살행입니다. 넘치는 이 웅장한 활력을 다 쓰는 이가 누구입니까? 보시하는 사람입니다. 가슴에 이뭘까 화두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도히 흘러서 흘러 돌아옵니다. 텅텅 비어서 하늘땅이 막 탄생되고 있습니다.
대우주의 이 따뜻한 관심, 이 웅장한 활력, 모두가 보살행의 원동력입니다. 이 자체로 돌이키는 힘입니다.
쉬어쉬어 쉬어진 생명자리로 돌아와 쉬게 해주는 것이 이~뭘까요, 주고 또 주고 심장을 뜨겁게 해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턱밑에 소리 없는 작은 맥박도 보살행이요, 이뭘까를 굴리는 용맹정진입니다.
물고기는 물이오, 학은 허공입니다.
마음껏 헤엄칠 수 있는 광활한 저 바다, 거침없이 날 수 있는 가없는 저 허공, 허공과 바다는 주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보시하는 마음으로 돌아섰을 때, 이뭘까로 돌이켰을 때 저절로 곁에 와줍니다.
일이 없는 쉬어진 선불장은 주는 마음으로 돌아선 납자에게 저절로 돌아오는 가피입니다.

自性五分法身香으로 장엄한 法界

영축총림 방장 성파 스님



頭頭總是요 物物全彰이로다
古今凡聖을 不用思量이니
刹塵沙界諸群品이
盡入金剛大道場이로다

두두가 모두 이것이요
물물이 온전히 드러내도다
고금의 범부와 성인을
사량하지 말지니
찰진세계의 군품이
모두 금강대도량에 들어있도다

총림대중이여!
화두참구의 일념에 삼복더위의 위세가 꺾이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었습니다.
노송 그늘을 지나 반석 위를 흐르는 계곡의 맑은 물이 세상의 뜨거움을 식혀 주게 되었습니다.
정진대중과 외호대중이 화합하여 이루어 낸 향긋한 결실입니다. 이는 자성오분법신향으로 법계를 장엄하고 만덕을 구족하게 하여 이루어 낸 결실입니다.

자성오분법신향은 계향(戒香), 정향(定香), 혜향(慧香), 해탈향(解脫香), 해탈지견향(解脫知見香)을 각자의 마음에서 풍기게 하는 것이니 결코 밖을 향하여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그름(非)이 없고 악함과 질투가 없고 탐냄과 성냄이 없으며 또한 빼앗고 해치는 마음까지 없는 것을 계향이라 하며, 선악의 경계나 형상을 보고도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을 정향이라 합니다. 이 향은 성품의 향이므로 제불국토에 두루하고 그 공덕은 한량이 없습니다.

화두탐구의 일념은 오분법신향이 원만히 이루어지게 하는 최고의 수행방편입니다 지난 삼하의 정진은 법계를 오분법신향으로 장엄했습니다. 그러므로 각자가 이르는 곳마다 그 향기가 가득할 것입니다.

지면 관계상 법어 전문을 싣지 못했습니다. 전문은 인터넷 뉴스(www.hyunbulnews.com)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